일 주 문

군종특별교구 국방부에 필리핀 기금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11월 21일 국방부에 필리핀돕기 모금액 1000만원을 전달했다.

네팔 · 북인도 성지순례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네팔과 북인도 등지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제4회 민세상에 한형조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1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4회 민세상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박종명 생명나눔 대구본부장은 11월 14일 생명나눔 활성화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본지 정혜숙·이나은 기자 불기협 대상

연중기획 '마음산업-신행 · 포교 지도바꾼다' 12월 2일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서 시상식

제17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현대불교신문사 정혜숙 · 이나은 기자의 '마음산업&불교' 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는 11월 19일 오후 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접수된 12작품(기획 · 해설부문 9개, 취재 · 보도부문 3개)을 심사, 2013년 제17회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불교신문사 정혜숙 · 이나은 기자의 연중기획 '마음산업-신행 · 포교 지도바꾼다' 를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으로 결정했다.

기획해설부문에는 불교신문 안직수 · 엄태규 기자의 '특별기획-한국불교 20년 후를 생각한다' , 취재보도부문에는 법보신문 이재형 기자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공정성 잃었다' , 특별상에는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의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이 선정됐다.

이번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불교계 기자들이 취재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고생한 흔적이 흠뻑 배어 있는 작품들이었다" 고 밝혔다.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승천)도 이날 회의를 열고 20주년 공로상 수상자로 채한기 법보신문사 상임논설위원, 이재우 주간불교신문사 취재부장을 선정했다. 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고〉 박종수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모친상

박종수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모친 김춘자 여사께서 11월 22일 별세했다. 발인은 11월 24일에 치러졌다.

"내성천 지켜야 환경 재앙 막을 수 있다"

불교계 내성천 한평 사기 운동 펼치는 지율 스님

사찰 중심으로 1천 명 모금 목표
캠페인으로 '강' 의 소중함 알려

내성천을 지키며 환경운동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율 스님이 세상으로 나왔다. 내성천 천평 사기 운동을 불교계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다. 11월 18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시민산방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내성천 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고 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님은 지금까지 내성천 한평 사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는 내성천 개발 계획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서 있었던 천성산 개발 취소 소송은 계속 제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때문에 내성천 땅을 사버리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셈이죠. 이를 통해 예산까지 책정된 공사가 취소되면서 위급한 상황은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내성천의 모습을 카메라에 혹은 영상에 담아 다큐 영화를 만들어 냈고 '습지와 새들의 친구' 라는 모임을 만들어 내성천 습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하천정비사업 등 또다른 이름으로 내성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스님은 내성천 한평사기 운동을 불교계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스님은 천성산 지킴이로 지난 10년 동안 10여 차례에 소송을 진행해왔고, 또 몇몇 일간지의 오보 등을 소송을 통해 바로잡기도 했다. 불교계 환경운동을 주도해온 장본인 중 한 명이기도 하지만 스님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불교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지율 스님은 스님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각 사찰을 돌면서 내성천 한평 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는 지율 스님. 공사 중단 혹은 취소가 아니라 강 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고 우리의 강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동시에 강을 습지보존 지역으로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앞으로 △낙동강 100before& after 모래강 내성천 도록 편찬 △내성천 개발 계획 철회를 위한 가처분 소송 △모래가 흐르는 강 2 다큐 제작 △먹황새 보존과 멸종위기 종의 보호를 위한 상소(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지율 스님과 함께하는 '내성천 1박 2일 릴레이 캠핑' (11월 18~12월 18일)△내성천 모래 글쓰기, 내성천 습지에 사는 생물들 수놓기 확대 캠페인 등을 펼칠 생각이다.

특히 1박 2일 '내성천 릴레이 캠핑' 은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캠프 일원에서 펼쳐지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강변에 모래글 쓰기, 내성천 소식 알리기, 지인에게 편지 쓰기 활동 등을 통해서 내성천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다. (010)3017-090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국대 장학금 쾌척 잇따라

성불사 학명 스님 15일 2억 원, 소녀시대 서현 19일 1억원 기부

종립대학 동국대에 장학금 쾌척이 잇따르고 있다. 소녀시대 멤버 서현은 11월 19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 며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현은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며 "동국대에서는 꿈과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 친구들과 학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불사 학명 스님은 11월 15일 동국대를 방문해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학명 스님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의 비전선포식 및 동문의 밤 행사를 앞두고 기부하게 됐다. 불교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 며 1억원을 전달했다. 또 학명 스님은 은사스님인 철웅 스님의 법명을 딴 강의실을 만드는 데에 보태달라며 1억원을 추가로 쾌척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이기도 한 학명 스님은 지금까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벽담장학, 교지매입기금, 교육연구환경 개선기금 등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소녀시대 서현(사진 오른쪽)이 김희옥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 21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선정

대상에 EBS 다큐프라임 '천장(天葬)'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가 주관하는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EBS 다큐프라임 '천장(天葬)' (2부작)이 선정됐다.

'천장天葬' 은 망자의 육신을 독수리에게 내어주고 영혼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독특한 장례의식, '천장' 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과 생사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네팔 무스탕 지역과 중국 티베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TV부문은 최우수상에 KBS 파노라마석굴암이 우수상은 BTN 3.1절 특집 '암흑 속에 핀 화엄 불국토, 초월의 일심교' 와 부산MBC '선문촬요, 마음속 부처를 읽다' 에게 각각 돌아갔다.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는 울산 MBC 부처님 오신날 특집 '바그마티강의 이별' 이 우수상에는 BBS불교방송 다큐에세이(2부작) '라디오 템플스테이' 나를 위한 행복 여행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 취재 2부(안직수 하정은 엄태규) '특별기획 한국불교20년 후를 생각 한다' 와 중앙일보 신준봉 기자의 '육조혜능 열반 1300주년, 한국 선불교의 뿌리' 가 각각 차지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이동식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회장(前 KBS 기자), 특별상은 아창재 감독의 다큐영화 '길위에서' 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일본사찰, 동전모아 보덕사에 기증

일본 불교성지인 남장원(주지 하야시가쿠죠)이 11월 18일 한국관광객들이 보시한 동전을 모아 보덕사(회주 삼중)에 기증했다.

남장원은 일본 불교 성지 고야산 진언종의 규슈지역 본산으로 세계최대 와불로 유명하여 연간 1만명의 한국불자들이 찾는 곳이다. 주지 하야시가쿠죠 스님은 1997년 부터 보덕사 삼중스님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삼중 스님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일주일간 보덕사에서 기도한 후 남장원측의 숭고한 뜻을 살려 소년원과 재활시설, 교도소, 이수현 재단 등에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양측스님은 이 행사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노덕현 기자

일붕선교종 법계고시 품수식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11월 21일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전 종도 법계고시 품수식' 을 봉행했다. 이날 품수식에는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교육원장 법해 스님, 고시위원장 용운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혜천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일붕존자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에 전념하고 종단의 기둥으로 거듭나자" 고 당부했으며, 총무원장 경원 스님은 "승가의 품위로 스스로가 종단 자체임을 명심하여 정진하자" 고 축사를 대신했다. 가사 및 법계증을 수여한 선덕, 계덕, 종사, 명덕까지 총 55명의 스님이 법계를 품수했으며 법계고시 성적우수자 도우 스님 외 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종단발전에 노력한 교육원장 법해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봉 행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 2557년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전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석진 지공
총무원장 : 경원
교육원장 : 법해 고시위원장 : 용운 고시위원 : 승원, 보성

법계품수자

덕봉, 대륜, 해월, 용운, 현암, 경담, 석성, 보성, 지성, 혜수, 경담, 승원, 지명, 동청, 무착, 도허, 편궁, 자운, 제법, 연화, 호원, 대각, 법일, 도우, 현오, 령산, 정암, 보은, 일명, 자림, 혜성, 무상, 해동, 정철, 붕원, 원공, 수오, 보원, 일현, 연오, 법려, 지흘. 덕운. 성운, 혜암, 혜청, 혜정, 호준, 현초

구족계수계산림 입제일 : 불기 2557(2013)년 11월 12일
법 계 고 시 입제일 : 불기 2557(2013)년 11월 13일
법 계 고 시 회향일 : 불기 2557(2013)년 11월 14일
법 계 고 시 장 소 : 인천 호 불 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